

# ‘1조 클럽’ 증권사, 최대 5곳 넘을 듯… 대형사 위주 호조세

키움증권,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1조982억… 전년 대비 94.5% 늘어 한투·미래에셋증권도 1조 달성 전망 중소기업사 실적부진은 올해도 지속

지난해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한 증권사들이 잇따르고 있는 데 비해 중소기업사들의 실적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증권업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1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증권사가 최대 5개사 이상 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대형사 위주의 실적호조세가 돋보이고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조982억원으로 전년대비 94.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11조2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1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8349억원으로 89.43% 늘었다. 삼성증권 역시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대형증권사 위주로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하면서 중소기업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미지.

시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2.7% 증가한 1조2058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폭 늘며 각각 1조원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증권 역시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7447억원에 달해

다음 주 실적 발표에서 1조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상장 증권사들이 영업이익 1조원을 다시 기록한 것은 3년 만이다. 지난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역대급 ‘동학개미’ 열풍 속에서 미래에셋, NH투자, 삼성, 한국투자, 키움증권 등 ‘빅

5’ 증권사가 1조 클럽에 진입한 바 있다. 하지만 2022년에 글로벌 금리 인상과 증시 부진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겹치면서 이들 모두 1조 원을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미국 증시 강세에 따른 해외 주식 거래대금 증가가 대형 증권사들의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19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가량 감소한 반면 해외 주식 거래대금은 23년 2880억달러에서 24년 5308억달러로 약 84%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식 중개 시장에서 강점을 보인 대형 증권사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었다. 여기에 부동산 PF 총담금과 해외 투자 자산 손상 부담이 완화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중소기업사들의 실적 부진은 지난해에도 지속됐다. 현대차증권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으며, 순이익

도 362억원으로 32% 줄었다. 다올투자증권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로 456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영업손실 755억원, 당기순손실 454억원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대형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시장과 투자은행(IB) 부문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중소기업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올해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증권사들은 전통적인 IB 부문에서도 대형 증권사에 밀려 수익 기반이 축소되고 있다”며 “해외 주식 중개 시장에도 진입하지 못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재무 안정성과 사업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금리 인하로 부동산 PF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초대형 증권사가 먼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어 중소기업사의 회복은 다소 더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이복현 “국내증시 장기투자 기반 확충 방안 마련”

韓증시 활성화 위한 열린 토론회  
연금자산 투자촉진 위한 규제개혁  
배당세제 등 각종 세제 개선 지원 필요

국내 증시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제 혜택 지원, 주주친화적 정책 강화 등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자본시장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등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들이 언급되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학계·연구기관·금융업계 등 전문가 및 개인·기관투자자와 함께하는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선진국 시장과의 격차 및 가상자산 시장의 도전을 받는 ‘양면전쟁(Two-Front War)’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자본시장 발전은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6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계·연구기관·금융업계 등 전문가 및 개인·기관투자자 등이 모여 열린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금융감독원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국내 증시는)특정 산업 편중과 혁신산업 성장 지원, 외국인 자금 유출 및 개인 투자자의 미국 시장 쏠림 등으로 투자 수요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통상 마찰과 기술 패권 경쟁은 실물 경제를 넘어 자본시장의 펀더멘탈(기초 체력)에도 직접적

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장기투자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할 예정이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 회장은 “한국 증시가 선진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업 밸류업

과 병행해 시장 수급적인 측면에서 장기 투자 수요 기반이 확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 개선 등 연금 자산의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며, 특히 연금자산이 해외가 아닌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배당세제를 비롯한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개선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자유 토론회에서도 장기투자 유도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관태 금융투자협회 상무는 “퇴직연금 적립금과 같이 목적성이 뚜렷한 장기 투자 자금이 자본시장에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성장과 국민 노후 재산 증식의 선순환 구축이 필요하다”며 “주주 환원율을 높여 가계 자금 등이 자본시장으로 유도되도록 세제 혜택, 연금 인센티브 등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으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강화를 꼽았다. 생애 주기에 걸맞는 자산 형성 전략을 위해 더불어 주니어 ISA 도입을 새롭게 제안했다. 주니어 ISA란 만 18세 이하 거주자(일반 ISA 가입자 제외)를 대상으로 ISA 납입금액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발생 소득을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다. 만 18세까지 유지한 뒤 19세 이후 인출할 수 있으며, 일반 ISA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전제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생애 주기에 맞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 다양한 패키지로 존재했다면 좋겠다”며 “영국에서도 주니어 ISA를 운영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아동 발달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고 공감했다. 일본 역시 과거 단기적으로 주니어 ‘니사(일본판 ISA)’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박 연구원은 “노년을 위한 노년 자금, 미래 태어날 자녀들을 위한 자금 등 목적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 투자자금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생애 주기 패키지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금감원·금투협·거래소 등 ‘딥시크 차단’

과도한 사용자 정보 수집·보안 이슈

정부 부처에 이어 증권가에서도 중국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가 확산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내부 공지를 통해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한다고 알렸으며, 금융투자협회도 보안 등을 이유로 이날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한국거래소는 정부 부처들이 딥시크 접속 차단에 나섰던 31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실시했다. 거래소는 관계자는 “정부에서 AI 업무 활용

시 과도한 사용자 정보 수집 등에 대한 보안사항 준수 강조하면서 차단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코스콤도 거래소와 같은 날 임직원을 대상으로 딥시크 사용 주의 공지를 내렸다. 코스콤 관계자는 “설 연휴 직후(1월 31일) 딥시크 사용 주의에 대한 최초 공지를 내렸고, 이달 5일 보안유에 대해서도 공지했다”며 “현재 사용 차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예탁결제원도 딥시크 접속 차단과 관련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미래에셋증권도 지난달 말부터 바로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보안 이슈와 서비스 모델이

사양에 맞지 않아 이용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 IBK투자증권, LS증권 등도 딥시크 차단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달 들어서는 다올투자증권과 iM증권, 메리츠증권 등이 딥시크 접속을 막았다.

아직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증권사들 역시 내부적으로 사용 주의 및 차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KB증권은 6일 내부 논의 끝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딥시크 사용 시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다운로드 및 설치 자체를 권고하는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NH투자증권, SK증권, 한양증권 등도 관련 사항을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하은 기자

## 예탁원 “지난해 펀드 이익배당금 47.9조”

전년 대비 78.06% 늘어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펀드 이익배당금이 47조9278억원으로 전년 대비 78.06%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익배당금은 펀드가 매 회계기간 종료 시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한 금액이다.

이익배당금 중 공모펀드는 7조2027억원으로 65.54% 늘어났고 사모펀드는 전년 대비 80.47% 증가한 40조7251억원을 기록했다. 이익배당금을 지급한 펀드 수는 공모펀드 2505개, 사모펀드 1만5771개로 각각 29.93%, 8.62% 증가했다. 펀드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동산·특별자산형 공모펀드의 이익배당금은

902억원으로 전년 대비 69.08% 감소했다. 이외에 다른 유형 펀드들의 이익배당금은 증가했다. 특히 재간접, 파생상품투자형 펀드가 포함된 기타 펀드의 이익배당금은 4148억원으로 127.66% 늘었다.

지난해 이익배당금 재투자금액은 26조2743억원으로, 이익배당금의 54.82%에 달했다. 재투자금액 중 공모펀드는 6조5300억원, 사모펀드는 19조7443억원으로, 재투자율은 각각 90.66%와 48.48%다. 사모펀드의 경우 재투자가 곤란한 부동산·특별자산형 이익배당금 비중이 높아 재투자율이 낮았다.

/원관희 기자